

## 부산시 선정 미래유산, 부산의 독서 문화를 선도하는 향토기업 영광도서

### 김윤환 회장을 만나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이 부산에 있다. 영광도서가 그 주인공이다. 1968년 영광서림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어 현재까지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책의 가치와 독서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영광도서의 주역, 김윤환 회장을 만났다.

### 함안 소년, 서점 주인이 되기까지

김윤환 회장은 경남 함안에서 6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친구를 따라 부산으로 온 그는 서당을 하시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서점에 취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다가 옛 부산상고 담벼락에 자리 잡은 서점 중 '함안서점'을 발견하고는 취직에 성공한다. 그렇게 서점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서점 일을 하다 아이디어를 얻은 그는 저울 무게에 따라 종이를 파는 고물상에서 구매한 책을 재판매하는 중간 유통업자로 변신한다. 사 온 책을 그냥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낙서를 깨끗이 지우는 등 번듯한 상품으로 만들어 차별성을 두었기에 그 결과 1968년 5월 1일, 영광서림을 열 수 있었다.

영광서림이라는 서점의 이름을 잠시 영광도서전시관으로 바꾼 시기도 있었다. 무인 가게라는 개념을 상상하기 힘들던 시절에 그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무인 서점을 운영했다. 그러다 가게를 확장하며 상호를 변경해 오늘날의 영광도서가 탄생했다.

### 영광도서, 이름 따라 거닌 영광의 길

서점에서 독자가 원하는 책을 먼저 구비해둬야 더 많은 사람이 책을 접하게 된다. 이것이 곧 김윤환 회장의 서점 운영 철학이다. 서점 경영인이자 열정적인 독서운동가인 그다운 신념이라 할 수 있다.

통일호 열차를 타고 상경해 책을 사 오기도 하며 그는 고객이 원하는 책이라면 어디든 찾아갔다. 교통비 등 비용을 생각하면 손해 보는 장사였지만 고객들의 입소문을 통한 홍보 효과와 영광도서엔 없는 책이 없다는 믿음이 쌓여 오히려 영광도서가 더욱 빛을 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독자들에게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그는 통영 욕지도에 있는 욕지중학교에 책을 기부하기 시작하며 꾸준히 책을 기증해왔다.

그의 훈훈한 행보는 매스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혹자는 책 판매도 어려운데 어떻게 책 기증을 하냐고 물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임에도 그의 신념은 너무도 굳건했다. 서점의 기본은 책을 많이 보급하는 일보다는 책을 즐겨 읽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 다 함께 지켜갈 미래유산으로

작년 영광도서는 부산시 미래유산 선정의 영예를 얻었다. 심사위원들의 신중한 논의를 거친 결과이기에 더욱 값진 성과다.

영광도서 독서토론회 등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공간을 제공해 시민들이 동호

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산의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해왔다. 특히 독서토론회의 경우 1993년에 처음 시작했고 국내외 유명 작가와 독자의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운환 회장은 미래유산 선정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감사와 겸손을 표했다. 서점이 사라져가는 요즘, 영광도서는 서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부산 시민에게 추억과 약속의 장소로 깊이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으로서 앞으로도 아름다운 자리를 지켜나갈 것이다.